

2019 정보공개센터 총회

2019년 3월 8일 금요일 NPO지원센터 1층 품다

16시 56분 설문요청

활동가 정진임 총회를 하기 전에 잠시 안내 하나 드릴게요 정보공개센터와 세계일보가 정보공개 기획을 하고 있는데 설문을 받으려고 해요. 정보공개청구 관심 있거나 경험 있는 시민 상대로 하는데 일반시민 중에는 아쉽게도 경험이 별로 없어서 정보공개센터 회원에게는 백발백중일거 같아 세계일보 기자가 설문지 나눠 드릴건데요. 정보공개이 경험 있으신 분들 설문지 꼭 작성해주시고 다 되시면, 나가실 때 책상에 두시면 수거까지 하겠습니다.

19시 02분 개회

사무국장 조민지 네 이제 시간이 다되서요 정보공개센터 11차 정기총회를 곧 시작하려고 하는데 시작해도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 정기총회 진행을 맡은 정보공개센터 사무국장 조민지입니다. 초오히 성사가 되기 위해 성원이 필요한데 680명중 성운 정족수 136명 되어야 합니다. 현재 위임해주신 회원분들 166명이고 이자리에 참석해주신 분이 31분으로 2019년 11차 정기총회가 성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회원 전원 박수

사무국장 조민지 제가 10일뒤면 정보공개센터 출근 만 6년인데 행사진행 처음 해봐요. 떨리는데 이런 격한 호응 너무 좋습니다. 앞으로도 잘 부탁 드리고요 진행 이전에 사무국 활동가 인사가 있을 건데요. 작년 4월부터 입사해 활동한 김예찬 활동가가 전국 기초 의원들을 벌벌 떨게 하고 있습니다. 해외출장내역 업무추진비 징계내역까지 탈탈 털고있는 김예찬 활동가를 모시겠습니다.

활동가 김예찬 안녕하세요 총회에서 처음 인사드려 정말 반갑고요. 10년 넘어 20년, 30년까지 함께 활동 해. 나갈테니 끝까지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지금부터 정식으로 총회순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2018년도에 어떤 활동을 했는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활동보고를 10분 안에 해야 돼서 빠르게 넘어 갈 텐데요. 한 일은 1년동안 많더라고요. 간단하게 순서대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순서에 활동보고를 보시면 자세한 내용이 있습니다.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고요. 정보공개센터는 위의 6가지 활동영역으로 중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알권리 이슈확산 부분입니다. 알권리감시단 이름으로 시민과 활동가가 함께 서울 25개 기초의회 업무추진비와 해외출장내역 조사 분석 활동을 진행했습니다. 분석결과 방만한 집행이 많이 발견 되었고요. 이를 한겨레 언론사와 보도를 진행했고 보도가 묻히지 않고 감사원 공익감사 청구를 넣어서 감사원에서 서울 25개 기초의회 감사청구 진행중입니다. 다음에는 2018년 있었던 지방선거 대응인데요. 후보자 검증이 아니라 기초 지역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펼쳐야 하는 정보공개 정책 제안 등을 했습니다. 특히 정보공개 심의회를 강화하고 사전 정보공개공표 확대 정책제안을 진행했습니다. 국회감시 어벤져스 활동은 뉴스타파, 좋은예산센터, 세금도둑잡아라 네개 단체가 활동했습니다. 국회의 의정활동에 대해 알아보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방만사용에 대해 밝히고 21명 국회의원에게 총 1억 3천만원의 세비가 낭비된 것을 국고환수 하는 결과를 이루어 내었습니다. 국고환수 뿐만 아니라 국회의원 11명에 대한 고발과 수사외로도 진행했습니다.

다음으로 알권리 정책연구 분야입니다. 2017년에 이어 회의공개법 관련연구를 진행했습니다. 2018년

미국 50개주 정부 회의공개법에 대해서 분석하고 연구했고 이 연구에서 정보공개센터 전소장이신 김유승 선생님과 최정민 운영위원께서 연구에 힘써주셨습니다. 연구 결과의 공유를 위해 오픈세미나 방식으로 시민과 한국의 의사결정과정 공개에 대해 논의 하는 자리를 가졌습니다.

알권리 네트워크 사업입니다. 전국 참여연대 연대체에서 전보공개센터와 결합해 지역 알권리 이슈를 진행했습니다. OGP는 미국 주도하는 정보공개와 전자정부 서비스를 통해서 국가의 투명성과부패방지 시민참여등을 재고하는 느슨한 형태의 국제 협약인데, 대한민국도 여기에 가입되어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가 협약에 있어서 시민사회 파트로 함께 활동하였습니다. 예정만세 이름으로 팟캐스트를 진행 했습니다. 정보공개와 예산은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좋은예산 센터와 함께 정보공개 이슈를 이야기하는 팟캐스트 진행했고, 인권운동 포럼도 진행했습니다. 2018년 인권운동 포럼이 진행되었는데요. 알권리 세션 함께 참여해 시민사회분야 어떤 알권리 침해 되는지, 예를들어 노동자 건강권과 관련한 작업현장 알권리 침해와 국내에서 인권 침해를 알권리 관점으로 알아보는 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 정보공개 정책포럼을 진행했습니다. 서울시와 함께 정보공개 정책이 어땠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포럼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비밀해제 기록공유 파트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어떤 일이 있었고 정부가 한 이야기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해당 당시 기록 공공기록과 유의미한 민간기록을 모아서 아카이빙 작업을 진행 했습니다. 사이트를 통해 올해 오픈 예정입니다.

알권리 침해대응 영역입니다. 정보공개센터가 지속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하며 비공개 행정심판등으로 대응하고 있고, 2018년 1월 이명박 영포빌딩 대통령 기록물 발견에 대해 이명박씨와 관련자들을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반으로 고발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시민역량강화 영역에서는 시민들의 정보공개 감수성 높이는 활동 했는데 올해 진행 못하고 2019년 정보공개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정보공개교육인 알권리 학교를 1회 진행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이 알권리 감시단 활동뿐만 아니라 외부 에서 들어오는 요청 교육 많아 충분한 시민역량강화 활동 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6가지 중점영역을 깊고 탄탄히 하기 위해 조직역량강화에 대한 사업을 진행하였습니다. 회원 사업입니다. 2018년 까지 10년간 정보공개센터 후원한 누적회원분들이 1412명 입니다. 그중 현재까지 실질납부 회원수는 686명이고 2018년 총 81분의 신입회원으로 가입해 주셨습니다. 다음으로 창립10주년 기념 사업입니다. 2018년은 정보공개센터가 설립 된지 10년 되던 해였습니다. 기념사업을 진행했는데 첫 번째가 심포지엄 입니다. 심포지엄에서 정보공개센터가 창립 되고나서 정보공개운동이 어떻게 변해왔고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 이야기 했고, 후원회원의 밤 사업을 통해서 회원을 만났습니다. 지난 10년간 정보 공개센터를 꾸준히 후원해준 분이 100여분 되셨는데 이분들께 지난 10년간 존재 하게끔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의미로 기념품을 증정하는 행사도 진행 했고요. 정보공개센터 10년간 활동을 조금 더 많은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2건의 언론인터뷰도 같이 진행 했습니다.

다음으로 재정안정화 사업입니다. 2018년 정보공개센터가 재정적으로 많은 위기를 겪었습니다. 예상해보니 2018년 9월 활동가 급여를 지급하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급하게 퇴직기금 중 1000만원을 전용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에 충격받은 활동가들이 모금 확대 캠페인 열심히 하자는 의미로 10주년 기념사업을 기점으로 굉장히 열심히 모금사업을 진행해 10주년 후원회원의 밤을 기점으로 후원금 5천만원 이상 달성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다행히 전용 퇴직기금을 다시 통장에 넣어두었고 이렇게 조직역량강화사업도 열심히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 결산을 보시겠습니다. 총회자료집 60페이지 보면 자세한 결산상황 확인이 가능합니다. 2018년 총 2억2천900만원 수입이 있었습니다. 대부분 회원들의 CMS 회비수입과 특별 후원금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중 1억 9천 6백만원을 지출 하였습니다. 아끼고 아껴 지출을 적게했는데 차액은 3200만원인데 이게 활동가들의 노력이 들어가있었던게 18년 활동가들 받는 상여금 일부를 포기하는 결과를 낳았

고 60페이지 사업비나 운영비라든지 복리후생비 증감비율 보시면 운영비도 매우 아껴서 활동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결국 시민들이 주신 후원금으로 시민이 환호하고 권력이 두려워하는 정보공개 운동의 중심이 되고싶어 활동했고 6가지 중점영역 활동으로 정보공개센터의 핵심가치인 독립성, 존중, 신뢰성, 능동성을 바탕으로 활동하였습니다. 정보공개센터의 최종미션인 정보공개를 통해 모든 시민이 알권리를 누리는 투명하고 책임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 2018년도 열심히 활동했습니다. 여기까지 활동보고를 마칩니다.

다음에는 2018년 감사보고가 있겠는데요. 저희 감사는 사업감사외 회계감사를 따로 진행합니다. 지금 사업감사님은 논문 프로포절 관련해서 참석이 어려우셔서 서면으로 요약본으로 읽어드릴거고요. 회계감사 먼저 진행하겠습니다. 최승우 회계감사님 모시고 회계감사보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감사 최승우 안녕하세요. 회계감사 최승우입니다. 만나뵙게되서 반갑습니다. 저는 전문적 회계지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회원분들이 판단할 수 있게 자료를 정리해 제공하는게 제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숫자를 가지고 정보공개센터가 처한 상황을 회원분들이 공개적인 의사결정을 하는 근거가 되도록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했습니다. 내용, 53페이지 보시면 투명사회정보공개센터 운영수입을 보시면 2017년에 비해 증가하는데 보기에 10주년 회비 후원금 및 기타수입이 일시 증가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여기서 일시적이 핵심입니다. 2018년 흑자는 '일시적'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54페이지 운영차액 누계액도 흑자전환 되었지만 10주년 기념사업 영향으로 보이고 판단이 어려워 이전 적자와, 4년간 운영차익 적자를 감안 하셔야 하고, 2018년 운영차익 적자분 완화 또한 사실이나 흑자전환 지속에 대해서는 의문을 가지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55페이지 2018 운영지출을 보고 판단한 것이 아니라 2015~2017 3년간 평균금액을 보면 연간 1000만원 적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올해는 흑자이긴 하나 내년부터 1000만원 적자 전환이 우려됩니다. 1000만원이기 때문에 매달 100만원 적자 수준입니다. 여기서 말씀드릴건 최저임금 인상으로 적자폭이 2019년 더 높아질 것으로 예상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우선 56페이지 당기말 적립금 누계액에서 퇴직적립금 문제가 2700만원 있습니다. 이 금액이 많는지 적은지를 판단해야 하는데 정보공개센터가 지난 10년간 활동가가 2천만원을 받았다면 10프로인 2천만원이 퇴직적립금으로 적립되어야 하는데 현재 2700만원이고 5인활동가 체제라 규모가 어느정도인지에 대해서는 회원님들의 판단이 필요합니다. 2700만원이 적립되어있으나 5인 체제 고려하셔야 합니다. 활동가로서 퇴직금을 맞추는건 어렵지만 중장기적으로 금융권 예치가 맞는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따로 통장을 운영하는 것보다 금융권 예치를 권고합니다. 마지막으로 57페이지 투명사회를위한 정보공개센터 알아야할 숫자 이야기를 봐주십시오. 올해 A활동가 실제 급여 실 지급액이 2700만원이고 B활동가가 2100만원으로 차이가 660만원 정도 되는데 이게 76.3%수준입니다. 정보공개센터 활동가 사이 임금격차에 대해서도 판단을 부탁 드립니다. 정보공개센터는 5인이상 사업장 이기때문에 근로시간 40시간 기준이나 면밀히 관찰하면 40시간 이상 근무하는데 최저임금 인상으로 급여 정상화가 아니라 노동시간 줄이는 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보공개센터도 50시간 이상 근무하나 40시간 정도 일하는 것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0시간 맞춰서 세후 최저급여액 맞춘 A활동가 최저임금 125%수준이나 비활동가 95%수준으로 나옵니다. 50시간에 맞출지 40시간에 맞출지 판단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생각해 2019년 최저임금 인상분 반영하면 월 적자 1100만원이 발생합니다. 이부분에 대해 판단 준비가 필요해 보입니다. 올해 10주년 행사로 인한 흑자 전환분은 보수적으로 잡아서 20년 5월 이전 사라져 적자 전환 되므로, 최장 길게봤을때 이렇습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후원회원 강화나 기금 마련 판단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드립니다. 몇가지 단순한 회계정보보다 회원님 판단 근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드리고자 노력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저희가 많은 다른 시민단체 총회 다녀보는데 이렇게 꼼꼼히 회계 감사 해주시는 분은 없습니다. 다시 한 번 회계감사님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사업감사님 사업감사 보고가 있는데요. 50페이지에 있는 부분 잠시 요약해서 말씀드리는 것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앞서 활동보고에서 드러난 사업내용 파악에 대한 것은 생략하고, 사업감사 감사하신 부분을 중점 적으로 아쉬운 부분이나 개선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주요사업에서 보시면 알권리감시단 활동과 관련해 감사님께서 12기 감시단 활동 결과 시민과 함께하는 기획 정보공개 활동으로 진행해야 한다. 특정 주제, 미세먼지나 사립유

지원 등을 주제로 활동하면 활동의 가시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사무국 역량투입 가능여부에 대한 면밀한 검토 동반되어야 한다. 국회의원 입법 및 정책개발비 현황 정보공개를 통해 부실 비리 알리는데 기여했으나 특수활동비나 특정업무경비 집행실태는 1회 기자회견에 그쳐 지속적 요구와 정책제안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옆페이지 알권리 정책연구 및 회의 공개법 재정을 위한 연구를 통해 오픈세미나를 열고 공론화 자리를 마련 했으나, 연구가 종료 된 뒤 내용을 공유하는 활동 이루어지지 못한 점은 아쉬움. 의사 결정 과정의 투명화를 위한 회의 공개 이슈를 확산하고 제도화하기 위한 노력 필요하다고 사업감사 보고를 말씀해주셨습니다. 다음으로 1997년 외환위기 아카이브 IMF 비밀해제 검토 작업이 지연됨에 따라 관련정보를 구축하지 못하는 실정이나, 축적 자료를 중심으로 실질적인 운영을 위한 타임테이블 짜고 진행할 필요가 있고 2016년부터 역량이 투입된 만큼 아카이빙을 알리고 대중적 관심환기를 위한 다양한 노력이 있으면 시너지가 날수 있을 것으로 기대. 네트워크 구축 및 회원사업과 관련하여 목적사업에 포함되지만 알권리 학교, 알권리 감시단, 오픈 세미나 등은 네트워크 구축이 가능한 사업이라고 판단된다. 사업을 중심으로 한 회원 참여 지속적으로 추진 함으로서 단단한 회원관계 구축이 필요. OGP 민간위원으로 정보공개센터가 제안 가능했으나 행정안전부 단독 진행하며 민간 수용이 없으므로 공론화와 연대기구 구성을 통해 제안한 정책의 현실화 방안을 강구해야한다. 다음으로 팟캐스트 예정만 세 업로드가 미진. 지역사회 시민운동 소개와 정보공개 및 예산 감시 목적에 비해 업로드와 홍보 안됨. 팟캐스트 특성상 많은 노력들어가는데 비해 이슈 확산이 원활하지 않으며 활동가가 품이 덜 들어가는 홍보 방안 활용 필요함. 운영전반에 대해 2018년 계획 사업 중에 미수행 사업이 있음. 총회에서 승인된 모든 사업을 수행 할 필요는 없고 합리적 사유 있을 때 진행하지 않는게 현명할 수 있으나 미수행 사업 중에 꼭 해야 하는데 못한 사업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보완해야. 2019년도 검토를 기반으로 사무국의 물리적 역량 투입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해야 한다는 감사 의견이었습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다음으로는 임원선출 및 승인 자리입니다. 정보공개센터에서는 총회가 최고 의결 기구입니다. 회원분들이 직접 오셔서 의결해주시는 부분 중에 운영위원 선출 절차가 있습니다. 총회로 인해 선출된 운영위원 안에서 대표단과 사무국 책임지는 소장을 선임할 수 있는 절차로 조직이 구성됩니다. 지금 정보공개센터를 위해 더 애쓰는 사람들. 임원분들인데 2018년 총회까지 이제 승인 되신 운영위원 분들이 몇 계십니다. 오신 김에 일어나 회원분들에게 인사도 전해주셨으면 좋겠고 더 애쓰시라고 회원분들이 임원분들에게 박수 한 번 보내 주시는 자리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운영위원 여러분들 잠시 자리에서 일어나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든든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일어났다 앉기만 하면 그러니 한 분을 대표로 모실건데 정보공개센터가 생겨난 이후로부터 총회에 꾸준히 참석 하셨을건데 그전까지 활동가로 참석 하셨는데 처음으로 운영위원으로 참석하신 분이 계십니다. 알권리 연구소 전진한 소장님의 한마디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운영위원 전진한 2008년 개소할 때 부터 벌써 11년이 됐습니다. 처음에 회원이 161명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 10년간 후원해주신 분이 100여분 넘는다는 것을 듣고 놀랐습니다. 명지대 기록관리대학원생들에게 만원씩 내라고 했는데 직장 다니고 하면서 계속 내주신거죠. KBS 기자분들도 많이 내주셨고, 이런 생각하면 이 조직이 기적같은 조직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여연대 1층과 2층이 뚫려있는데 1층에 자리 잡았는데 2층에서 청소하면 1층에서 먼지를 미세먼지 처럼 마셔서 하루종일 목이 답답했던 기억이 납니다. 아직 변변한 건물 못가지고 교회와 같이 사용하는데, 선배로서 미안하고 번듯한 건물 하나 지어 놓고 나오지 못해 가슴 아픕니다. 앞으로 정보공개센터 활동 격려해주시고, 3년동안 프리랜서로 먹고살려고 노력 많이 했습니다. 정보공개센터 소장 자리 한 번 하고나면 어디 취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저를 너무사랑하셔서 블랙리스트로 찍어 고생했는데 요즘은 큰 어려움 없이 살고 있는데요. 앞으로 정보공개센터 열심히 와서 돕도록 하겠습니다. 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애정이 많은 만큼 감사인사를 간단히 부탁드립니다 좀 기네요. 앞으로 제가 요청 드리면 다른 분들은 짧게 부탁드립니다. 감사의 인사를 전할 분이 계십니다. 2008년 창립부터 지금까지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뒤에서 방패막이 역할을 자임하신 이승희 대표님이 2018년 대표직을 내려놓으시고 고문 자리로 정보공개센터와 같이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감사한 마음을 담아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잠시 모시겠습니다.

고문 이승휘 반갑습니다. 대학에 가면 합동 장례식처럼 총장 얼굴들이 쪽 붙어있는데 센터도 대표가 꽤 많았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저는 그래도 일년에 한 두번 나오는데 전혀 나오시지 않은 대표도 많았는데 그분들이 저보다 못한 대표는 아니고 설경기 목사님께서 대표로 계시면서 상당히 말그대로 대표로서 열심히 일해주셔서 사무실도 서목사님의 도움으로 한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보공개센터는 청출어람입니다. 한국국가기록연구원 분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었는데 현재 한국국가기록연구원보다 센터가 명불허전입니다. 이렇게까지 발전하기에는 초기가 제일어렵습니다. 초기에 센터의 기본을 다졌던 방금 전진한 전 소장의 역할을 말 그대로 센터의 초창기 역사다 이렇게 말해도 어긋나지 않으리라고 생각하고, 새로 선임된 정진임 소장도 그때부터 지금까지 쪽 센터를 위해 활동을 해왔습니다. 그 다음에 하승수 변호사님이 소장을 맡을 때 저희 센터가 크게 외연적으로 발전했고 이후 발전을 이어져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운 대표와 소장님들에 의해서 더욱 더 발전 되리라고 믿고요. 그러나 이분들도 있지만 역시 회원들입니다. 여러분들께서 끝까지 이 센터가 발전하고 또 어려울때는 돕고 하는 그런 좋은 NGO로 발전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저희가 간단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감사패를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패에 새겨진 문구가 안보이실까봐 프로젝터로 띄워놨습니다. 깊은 물 만나도 두려워하지 않는 물고기처럼 험한 기슭에 꽃 피우길 무서워하지 않는 꽃 처럼 길 떠나면 산맥 앞에서도 날개 짓 멈추지 않는 새들처럼 이승휘 대표님이 계셨기에 정보공개센터는 두려움 없이 활동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따로 또 감사 의미로 이때 까지 저희 바람 막아주셨다는 의미로 바람막이 하나 구매했습니다. 집에 가시기 전에 꼭 잊지 말고 한 번 전달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바람막이를 준비했습니다. 한 번 펼쳐봐 주시죠.

고문 이승휘 회장하면 이런거 받습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새로운 대표단 인사가 있겠습니다. 올해는 운영위원으로 오래 활동해주신 권혜진 선생님께서 대표단을 맡아 주시기로 했습니다. 3년간 소장활동해주신 김유승 전 소장님께서 새로운 공동대표단 역임해주시기로 하셨습니다. 두 분을 모시겠습니다. 임명장부터 먼저 드리고 취임소감을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임명장 김유승 권혜진님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대표로 임명합니다. 고민하고 싸워야 하는 일은 많고, 빛난 일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 고난의 길을 흔쾌히 결심해 주셔서 정말 고맙습니다. 대표님의 건강과, 웃음과 의지가 사라지지 않도록 정보공개센터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대표 권혜진 금방 소개받은 권혜진입니다. 인사 드리겠습니다. 과분하고 영광스러운 자리를 맡겨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능력도 부족한데 이런 자리 맡아도 되나 걱정했는데 일년에 한 번도 안나온 대표도 있다고 하셔서 큰 용기를 얻었습니다. 정공센 활동가가 잘 활동할 수 있도록 작은 힘이지만 열심히 돕겠습니다.

대표 김유승 안녕하세요 김유승입니다. 2015년 거의 이 자립니다. 입고 있던 옷도 그 날 입었던 옷 그대로 4년이 그냥 훌쩍 지났습니다. 4년전 2015년 그 자리에서 부당한 정보공개에 대해서 고소고발 남발 하겠다 큰소리쳤습니다 그 이유는 모든 고소고발은 이승휘 대표님 이름으로 했기 때문입니다. 그 역할을 어떻게 짊어져야 할 지 모르겠습니다. 간섭하지 않고 지원하고 지지하는 대표가 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앞으로 활동가들도 두분만 믿고 앞으로 고소고발 남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총회에 와주신 회원님들께서 승인 해 주셔야 하는 절차가 있는데요. 운영위원 선임에 관한 절차입니다. 올해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으로 두 분을 추천드립니다. 한 분은 지역에 사시고 지역에서 돌아다니는 활동하시는 분이래 오늘 미처 오시지 못해 출마의 변을 텍스트로 올리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더 이름의 연구위원으로 활동하는 하승우~~. 라고 출마의 변을 던져주셨고요 그다음에 밑에 계시는 분 다들 아시죠. 이제 운영위원까지 하겠다고 출마의 변 던지셨습니다. 들어보시고 판단해주시요.

활동가 정진임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운영위원 후보로는 처음 자리에 올라온 정진임 활동가라고 합니다. 다시 반갑습니다. 제가 그 동안에는 시민운동을 왜 할까 생각했을 때 좋은 사람이 되고싶어서 할

동가가 되어야겠다 생각 했었는데 이제는 좋은 사람 뿐만 아니라 좋은 활동가가 되어야 겠다 생각을 작년에 일년동안 안식년 주신 덕분에 쉬면서 생각했습니다. 좋은 활동가가 되어서 좀더 좋은 사회의 반응을 만들어내고 공간과 영역을 만들어내고 그 중심에 정보공개센터가 있어야 겠다 생각 하게됐고 그 결과로 운영위원이 되어야겠다. 왜 되어야 하나면 소장이 되고 싶다. 이런 야망 가지고 운영위원으로 출마하게 되었고요. 지난10년 까지의 정보공개센터와 제가 앞으로 운영위원이 된 다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하던 대로 명랑하게 발랄하고 가끔 도발적으로 정보공개운동 해나갈 것이라고 생각하고요. 더 노력하려는 부분은 정보공개운동이 우리에게서 주제가지만 다른 곳에서 중요한 수단 무기입니다. 유해화학물질 정보를 모르는 노동자, 중요한 국가협상에서 배재된 지역 당사자들. 농민, 노동자, 시민들이 정보공개라는 무기를 아주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일. 저희는 좋은 무기를 만드는 일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꼭 운영위원으로 선출시켜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네 이렇게 정보공개센터 운영위원회에서는 이 두 분을 추천하는 바 다른 의견 있으신가요?

회원 전원 박수로 승인

사무국장 조민지 앞으로 운영위원과 동시에 소장직을 수행할 정진임 저희 소장님께 임명장을 수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서와 운영위원으로는 처음이지? (임명장 낭독) 정진임님을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에~~.네 이렇게 각계에서 꽃다발이 오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정보공개센터 활동가들도 정진임 소장을 필두로 해서 더 멋있게 의미있게 활동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려면 19년에 뭘 해야될지 궁금하시겠죠? 제가 진행해서 그런지 역대로 빨리 끝날거 같습니다. 전집 뒤풀이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2019년 활동계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6가지 중점영역별로 사업 진행하고자 합니다. 색깔이 다른데 자료집에서는 36페이지부터 살펴보면 자세하게 나와있습니다. 보라색으로 표시된 사업명은 2019년에 신규로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신규로 기획한 사업에 대해서 중심으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권리 이슈확산 영역입니다.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언론상황의 급변으로 데이터저널리즘 콘텐츠를 계획하고자 하는데 공공데이터 수요가 급증하는 대신 중앙정부나 지자체는 수요를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어 가장 잘했던 것들 공공정보를 받아내는 일을 해서 조금 더 유의미한 정보들을 시민들과 공유하기 위해 데이터 저널리즘 콘텐츠를 기획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2020년 총선 대응입니다. 2020년에는 국회의원 선거가 이루어집니다. 이때 두 가지 알권리 이슈 존재하는데요. 국회의원을 그만두고 나가는 의원들 기록 처리에 대한 이슈와 당선될 국회의원이 의정활동 내용을 어떻게 공개하고 공유할지하는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이슈입니다. 한국에서 국회의원 기록관리와 정보공개 제도가 미흡한 수준입니다. 따라서 2020년 총선 대응을 위해 국회의원 정보공개와 기록관리 이슈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 정보공개이슈 영상콘텐츠 제작입니다. 저희가 정보공개를 진행한 결과들을 텍스트로 올리는 작업을 했는데 요즘 유튜브가 대세가 되면서 뒤쳐질수 없다 해서 영상콘텐츠를 시민들과 공유하고자 하는 정보 그리고 정보공개센터 활동을 영상에 담아서 공유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기존에 했던 사업인 국회감시 어벤저스 사업을 지속합니다. 이런 활동들을 보여 줄 오늘의 정보공개 청구도 지속적으로 사업을 진행해 나갈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알권리 정책연구 영역입니다. 정보공개 평가지표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의 투명성과 책임성이 요구되는데 이에 비해 행정부에서 발표하는 정보공개 평가 지표가 정량적인 수준에 미치고 있습니다. 지난 10년 활동 노하우를 토대로 공공기관 정보공개 평가 지표 개발에 착수할 예정입니다. 2019년 1차년 사업이 아닌 중장기 사업으로 바라보고 가지고 가려고 하고요. 법률 제정 및 개정, 정책연구 결과를 시민과 공유할 오픈 세미나 함께 진행할 예정입니다.

알권리 네트워크 영역입니다. 참여연대 지역운동연대와 OGP, 지역이라든지 이슈별 시민단체라든지, 국

제작 협약 등 알권리를 필요로 하는 곳에 정보공개센터가 같이 연대하여 알권리 네트워크 사업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비밀해제 기록 공유. 1997년 공공기록 및 유의미한 민간기록 정보를 모아 올해 아카이브 사이트를 오픈할 예정입니다. 시민들이 쉽게 접근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아카이빙 사이트 기반으로 전시 페이지 등을 개설해서 콘텐츠화 할 계획입니다.

알권리 침해대응 영역입니다. 저희가 기존 알권리 침해사항에 대한 고발, 헌법소원, 공익감사청구를 신청했는데, 이제 비공개 대응 목록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행정심판 소송만 모으는게 아니라 외부의 유의미한 비공개 대응사례까지 모아 알권리를 침해받은 시민에게 대응 목록을 정리해 제공하고자 합니다.

시민역량강화 영역입니다. 지역 맞춤 정보공개 콘텐츠를 개발하고자 합니다. 많은 지역 활동가들을 만나며 지역에서 정보 접근에 어려움을 느낀다는 것을 알게되었고 서울이 아닌 기타 지역의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정보공개 청구 방법으로 지역사회 감시 가능하도록 콘텐츠 개발하고자 합니다. 2019년 알권리 학교 지속 진행하고자 합니다.

다음으로 맨 밑에 네가지 사업, 여섯가지 활동지속을 위한 조직 역량강화사업 말씀드리겠습니다. 신입회원 만남의 날을 올해 꼭 진행하고자 합니다. 10주년 기획사업으로 한 번도 진행하지 못했는데, 신입회원 만나 활동을 좀 더 자세히 소개하고 회원분들이 자부심 가질 수 있도록 행사를 준비할 예정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성과 정리입니다. 단체가 10년 되면 책하나 써야 되지 않나 하는데 방법은 모르겠지만 창립 이후 10년간 한국사회에 영향을 미치고 어떤 성과를 내보였는지에 대한 정리 예정입니다. 책일수도 있을거 같은데 온라인 공유 성과정리 방법도 고민중입니다. 정보공개센터 정보 아카이빙. 이 사업은 정보공개센터가 지금부터 진행한 활동 성과를 제대로 보여주기 위해 내부 기록관리와 문서정리를 체계화 시키고자 합니다. 사무국내 기록관리 정보공유 방법을 조금 더 재정비해 이것들을 규칙화 하고자합니다. 재정 안정화 캠페인.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특별 모금으로 재정안정화 사업을 진행했는데 특별모금이 아닌 조금 더탄탄하게 재정구조 만들기 위해 정기적인 후원 수입을 늘리는 재정안정화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현재 활동비 92%가 정기 CMS 수입인데 19년 인건비 100%를 정기 수입인 CMS 수입으로 충당하기 위해 회원 확대 캠페인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자료집에 특별한 종이를 끼워두었습니다. 잘 활동했고 2019년에도 응원하고 싶어서 어찌 할 바를 모르겠으면 써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재정안정화 캠페인과 조직역량강화 사업을 탄탄히 해서 회계감사 지적 부분에 대해 열심히 노력하고자 합니다.

2019년 계획은 설명 다 드렸고 다음으로 19년 예산계획입니다. 자료집 66페이지 보시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예산 총액은 2억1천7백만원 입니다. 지출 외 예산계획도 2억1천7백만원입니다. 외부지원사업 수익이 대폭 감소한 부분이 있을겁니다. 이 부분은 아직 민간재단에서 사업지원을 받는 부분이 확정되지 않아 예산을 대폭 작게 잡았는데, 공고가 뜨고 있는 각종 민간재단에 정보공개센터 사업활동을 소개하고 지원을 달라는 요청서를 작성하거나 이미 지원서를 낸 곳도 여러곳이니 활동하다 지원사업에서 지원 받으면 다른 경로로 소식지나 홈페이지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센터는 이렇게 활동할거고 혹시 의문 가지거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말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송기호 감사께서 말씀하시길 퇴직금 감사때 의견을 물어보시지 않아서, 퇴직금을 대게 아예 매달 급여의 1/12을 퇴직연금으로 적립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고려해서 필요하시면 예산에 반영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입니다.

사무국장 조민지 2019년 예산에서 퇴직금 적립으로 500만원을 잡았는데 적은 금액이긴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고려하고 있고요. 회계감사님 보고 이후에 임금 구조 개편이나 퇴직금 적립과 관련해 2019년 첫 운영위원회의 안건으로 올려서 진행하고자 합니다. 의견주셔서 감사합니다. 다른 의견이나 질문사항 있으신가요? 2019년에는 이런 계획을 가지고 활동할 것이라고 총회에서 선생님들께서 승인해주셔야 합니다. 박수로 승인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전원 박수로 승인

사무국장 조민지 다음은 승인사항입니다. 정관 개정 사항이 있습니다. 78페이지 부터 있습니다. 올해는 정관개정 제안 내용이 4건이 있습니다. 79페이지 박스 표시 된게 정관 개정 제안 내용입니다. 임원 임기에서 중임이나 연임 제한이 없었는데 운영위원회의를 통해 임원의 임기의 횟수를 제한하고 단 대표와 소장 직책은 운영위원의 임기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고자 하는데 대표와 소장직을 운영위원중에 선출할 수 있어 중복 산입을 안하는 것으로 단서조항 달았습니다.

다음으로 82페이지 총회회의록입니다. 5년전 이사회에서 운영위원회로 변경 하면서 변경하지 못한 부분 이사를 운영위원으로 바꾸는 바고 총회회의록 작성해서 주된 사무소에 보관한다로만 되어있는데 공공기관 이렇게 하면 엄청 뭐라고 하는데, 왜 공개하지 않느냐. 근데 우리가 그러고 있다가 발견해 총회 회의록을 기록하고 운영위원과 감사의 서명 이후 이를 주된 사무소에 보관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한다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다음 개정내용은 82페이지입니다. 운영위원회를 1년에 5~6번 진행하는데 이때 사무국에서 주로 요청을 드릴 때 운영위원회를 진행하는데 정관내용에서 대표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개최 가능하다고 되어있는데 소장도 함께 운영위원회 요구 권한을 두는 방식으로 개정 제안을 드리는 바입니다.

83페이지 내용입니다. 이 문구는 뭐냐면 저희가 매년 발급해드리는 기부금 영수증 지정단체인데 4년 지나서 재신청을 해야하는 해입니다. 재신청 하려니 행정안전부 요구요건이 정관에 이 문구가 그대로 들어가 있어야 한다고 해서 정관 부분을 이런 식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기타 정관내용 보시고 의견이 있으시거나 제안 내용에 대한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기타 의견이 없으시다면 또 박수로 승인의 의사를 표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회원 전원 박수로 승인

사무국장 조민지 다음으로 정말 나는 여기서 회원으로서 정보공개센터에 이 말은 해야겠다 하는게 있으시다면, 기타안건을 접수받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사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도 좋고요. 아 네, 없으시다면 저희가 드디어 끝났습니다.

회원 전원 박수

사무국장 조민지 마무리는 단체사진이죠. 사진 찍으려고 하는데 나오시기 힘드셔서 카메라가 여기서 찍도록 하겠습니다. 사진 찍어 주시고요. 뒤풀이 자리 준비했습니다. 나가셔서 쪽 가시면 무교동 그집이라는 1층 전집이 있습니다. 사진 찍겠습니다.

20시 04분 총회 종료